

태고의 땅 너덜을 통한 배움 무등산 지질 생태 교육 실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Eco-Geo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등산권 지질 공원 생태 환경 교육 (Eco-Ge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이하 에코지오)은 8일 광주서석중 1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300여 명의 중학생들이 무등산 덕산너덜 일대를 직접 답사하는 현장형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에코지오 프로그램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무등산의 여러 지질 명승 중 하나인 덕산 너덜을 통해

지질과 암석, 기후와 식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광주와 전남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의 생태 환경 및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8일 실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원효사에서 출발하여 늦재, 바람재를 거쳐 덕산너덜에서 중심사로 내려오는 과정을 공인자격을 갖춘 강사들과 함께 동반하며, 무등산 주상절리대 형성과정과 화강암, 중심사 인산암질 용암 등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지질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학생들

은 시면에 의한 시면을 위한 새로운 환경운동의 사례인 무등산 공유회운동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지원하여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동아리 단위로 신청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의 주제선택활동으로 신청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나타내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의 수요에 맞게 운영 일정을 조정하고 학교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버스를 배치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운영 편의를 도모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무등산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함을 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에코지오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교육이 비단 환경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준비 박차



전남도교육청이 8일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에서 전남 마이스터고(4교) 교장, 학점제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관련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마이스터

고부터 우선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직업세계 및 고용구조가 급변하고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 박강현 연구사는 이와 같은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2020년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우선 적용해 2022년에 전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하고, 2025년에는 일반계고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사는 "학부모들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마이스터고에 우선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선도학교 지원, 지역산업수요 반영지원, 교원 역량강화 및 수업, 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등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평생교육관, '책 따라 떠나는 문학기행' 다녀와



광양평생교육관은 지난 5일 독서가족회원 40명과 함께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과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책 따라 떠나는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진주성의 진주대첩은 행주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조선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무찌른 임진

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며,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립 박물관 중 최초의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임진왜란 전문 기관으로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문화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공부문, 축석루, 의기사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항공산업의 발달사와 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한 자료를 보고 비행기를 만지고 직접 탑승하여 온몸으로 하늘과 우주를 느끼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학기행에 참여한 학부모 배혜진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의 중요성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관에서 이런 기행이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교육관에서는 앞으로도 책 읽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해남동초, 전교학생회 주관 한글날 행사 진행

해남동초등학교가 지난 8일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73돌을 맞은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소중함을 알아보기 위해 해남동초등학교 전교학생회에서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전교학생회에서는 한글날의 의미, 훈민정음의 뜻, 한글의 소중함을 한눈에 보기 쉽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설명해줬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나 많이 틀리는 맞춤법 퀴즈 카드를 만들어 퀴즈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교학생회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한글날의 의미와 중요성뿐만 아니라 한글 사용의 올바른 방법 등 지나치기 쉬운 요소들을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즐겁게 익힐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임현중 학생(6학년)은 "혼동되어 사용했던 맞춤법을 퀴즈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평소 친구들이 신조어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점차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학생회 캠페인부 이지민 학생(6학년)은 "처음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어서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학년도 맞추기 힘든 문제를 1학년 학생이 다 맞추어서 굉장히 놀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해남동초등학교 전교학생회는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채로운 알뜰 행사를 계획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무안교육지원청, '통통통! 무안 독서토론 대회' 개최



무안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12팀, 중학교 8팀을 총 82명을 대상으로 '통통통! 무안 독서토론 대회'를 무안영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한마당'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 경청

과 물임을 경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학생들이 현실 속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경쟁이 아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축제의 장소로서 독서토론대회를 즐겼다.

독서토론 대회에 참가한 오룡중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논제를 고민하며 함께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대회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정재철 교육장은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아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